

	성명서	2021. 12. 23 (목)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김건희 씨의 뉴욕대 학력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비난부터 앞세운
국민의힘 “가짜 해명 유포단” 은 즉각 사죄하고 반성하라**

김건희의 뉴욕대 학력 허위 기재 가능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측 해명이 ‘가짜 해명’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김건희 씨의 안양대학교, 수원여대 교수초빙지원서에 학력, 경력으로 기재된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 이 실제 뉴욕대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19일 당일 김 씨가 서울대학교 GLA 과정을 2006년 12월까지 이수하고 그 중 한 달간 NYU 연수를 수료했다고 밝혔으며,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이를 받아 김 씨의 연수에 대해 “이론이 없다”면서 현안대응TF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라 모욕하였고, 법률지원단(단장 유상범)은 현안대응 TF를 “가짜 뉴스 공작 TF”라 칭하며 고발할 방침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서울대 확인에 의하면,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는 서울대의 “위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체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불과할 뿐, 뉴욕대 학력이라고 볼 수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연수 일정도 5일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다. 김건희 씨는 서울대 프로그램을 마치 뉴욕대 프로그램인 것처럼 둔갑시켜 기재한 것이다.

김 씨의 NYU 학력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김건희 씨의 연수 증거는 ‘설 모씨’ 앞으로 발급된 “뉴욕대 스텐 스쿨에서 열린 ‘서울대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경영’ 수료를 인정한다”는 사진과 김 씨로 추정되는 사진이 담긴 인터넷 기사뿐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그 배우자에게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받지 못하

는 자들이 상대방 선대위를 비난, 모욕하고 “고발” 운운하며 겁박한 것이다.

현안대응TF에 대한 모욕과 비난으로 성실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을 대신한 국민의힘 “가짜 해명 유포단”, “가짜 해명 지원단”이 즉시 사죄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가짜 해명 유포단”, “가짜 해명 지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반성하라.

2021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상임 단장 김병기

단장 김승원 홍기원 황운하